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가 생기기까지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 브렌 덴 수사

호스피스라는 말은 라틴어 'hospes'에서 유래되었는데, 주인과 손님, 즉 인간이 서로 돌보는 것을 상징한다.

고대 후반기와 전반기에는 'hospital' 'hostel' 'hospice'라는 단어로 혼돈되어 사용되어 오다가 중세기부터는 호스피스라는 말로 통일되었고, 예루살렘 성지로 가는 사람들이 하룻밤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보살피 주는 것을 뜻했다.

현대에서 hospice란, 완화적 치료라고도 하는데, 병이 '자유를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말기 단계에 왔을 때, 환자가 남은 생애를 끝까지 충만하게 살고,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자신의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인 안정을 주고, 통증을 조절해줘, 선종을 맞도록 보살피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믿고, 호스피스는 임종까지 개인이 누리는 질적인 삶을 강조한다. 즉 호스피스 프로그램은 죽음을 직면하는 동안이나 생을 잃어가는 과정 동안 경험하는 신체적, 정서적, 영적,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오는 증상을 완화하고 지지해, 죽는 순간까지 생명이 가진 품위를 최고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지,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에게 일어나는 과정들을 가족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안위를 도모하는 것으로, 전인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호스피스 활동은 환자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분야의 team-의사, 간호사, 원목, 사회사업가, 자원봉사자, 환자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전문적인 업무와 비전문적인 업무로 구분,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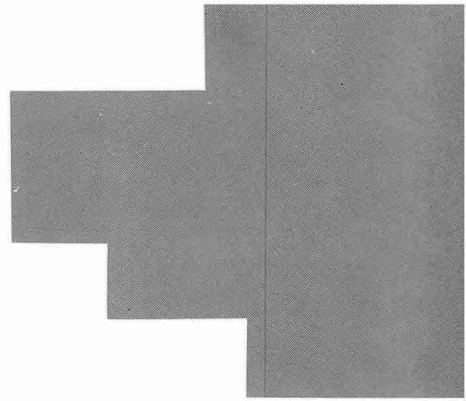
여기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자유롭게 의료팀을 도와줄 수 있고, 환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가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모든 일에 함께 하여, 이들이 소외되고, 격리되고, 버려진 상태가 되지 않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퇴원한 뒤나 환자가 죽은 뒤에도 가족들과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갖는 것이다.

제일 처음 호스피스가 생긴 것은 지금부터 150년 전인 1842년 프랑스 리

옹에서 제느 가니에(Jenne Garner)여사가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면서 부터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톨릭계 호스피스가 활동한 역사는 다음과 같다.

- 1963년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님들이 갈바리의원에서 임종환자를 돌보기 시작함.
- 1980년 3월 광주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에서 호스피스 활동 시작
- 1981년 갈바리 의원에서 호스피스 환자를 위해 14개 침상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환자를 돌봄
- 1981년 8월 가톨릭 의과대학에서 의사, 원목실, 간호사, 학생이 중심이 되어 호스피스 활동이 시작됨
- 1982년 10월 가톨릭 의대 부속 성모병원(명동)에서 호스피스 활동 시작(19명)
- 1987년 2월 가톨릭 의과대학 성모병원과 강남 성모병원에서 호스피스 과를 둠
- 1988년 3월 성 바오로 병원에 호스



피스과를 돕

- 1988년 10월 강남 성모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기 시작
- 1988년 춘천 성 골롬반의원에서 가정 호스피스 활동 시작
- 1990년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가정 호스피스 활동 시작
- 1990년 7월 성가복지병원에서 무의탁 말기환자 돌봄 시작
- 1991년 11월 성가 복지병원에서 호스피스과 신설
- 1992년 8월 성가 복지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 개설

이처럼 여러 곳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던 가톨릭 단체들은 호스피스 봉사단체들간에 서로 긴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어떤 통일된 활동형태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1990년 5월 여러 호스피스 기관 대표자들이 모여 첫 모임을 가졌고, 이어서 수차례 월모임을 통해 협회이념과 회칙을 만들었다.

드디어 1992년 3월28일에 서울 가톨

릭 센타 3층에서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했다.

이 모임에는 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이 소우교수(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 회장)가 진행을 맡았고, '마리아의 작은 자매 수련회'에 계시는 메어리 트레시(Mary Treacy, LCM.MBBS)수녀가 "현대 사회에서 호스피스는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셨다.

이제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가 결성되어,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호스피스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데, 일치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호스피스 기관끼리 국제적인 정보교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성급한 결과를 바라지는 않지만 협회가 결성되었으니, 모든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

이제 우리 호스피스 협회가 해야 할 첫번째 일은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가

가진 역할과 기능, 그리고 목표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호스피스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말기질환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인지를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홍보를 통해 일반인들이 더 많이 호스피스를 요구하게 되려면 일반 대중과 의사, 간호사들에게도 호스피스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시켜야 한다.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는 이 사실을 주지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홍보와 교육, 출판에 있어서도 그 질적, 양적인 발달에 주력하여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 야 한다. 따라서 호스피스 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 각자의 참여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진심으로 희망한다.